

ICT가 몰고 온 윤리적 고민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는 현대를 상상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박고 사는 요즘,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인터넷을 포함한 여러 네트워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맞물려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동훈 과학 칼럼니스트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고 했던가? 이렇듯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CT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중에는 ICT가 몰고온 윤리적인 고민도 명백히 존재한다. 게다가 이는 순수 윤리 차원을 떠나서, 사회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해악을 가하고 있기에 결코 만만히 볼 것이 아니다.

ICT 발전과 함께 고민해야 할 윤리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생활 침해다. 이미 현대인들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 자신의 개인 정보의 일부를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매우 적극적으로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올려놓은 개인 정보들이 해킹을 당해 새어나갈 경우,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측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마따나 '아

는 것은 힘'이기 때문이다.

사생활 침해의 표적이 되는 것은 네트워크 상에 올려진 개인 정보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인터넷은 사물 인터넷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를 입출력하는 기기가 기존의 PC나 랩탑 이외에도 매우 다양해지고, 그 존재 위치도 그야말로 없는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스마트폰은 물론 디지털 카메라, TV, 냉장고, 프린터, 피트니스 트래커, 시계 등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 주택이나 공장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당한 사용자에게 의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주택이나 공장 등의 특정 표적은 그야말로 '탈탈' 털릴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정보 조작이다. 사실 인간은 참

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그리 뛰어난 생물이 아니다. 게다가 ‘정보의 바다’라는 말로까지 표현되는 인터넷의 방대함은 ‘모든 유용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준다. 그러나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민물 대신 마셔서는 생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주무대로 한 ‘가짜 뉴스’, ‘짜라시’들이 판을 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진리값이 없는 허위 정보를 고의적으로 생산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허위 정보를 검증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저 본인이 가지고 있던 편향성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믿거나 믿지 않거나를 결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인터넷은 그 전파력과 전파 속도가 매우 뛰어나고,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흑색 선전의 매체로 제격이다. ‘P&G사는 사탄을 숭배한다’는 헛소문이 인터넷에 나돌아 해당 기업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은 고전적인 사례다.

세 번째는 저작권 침해다. 물론 앞서 다룬 다른 두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ICT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매우 발전한 ICT는 주요한 저작권 침해 행위 중 하나인 표절을 매우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Ctrl+C, Ctrl+V’, ‘복붙(복사 붙여넣기의 줄임말)’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절 출처의 탐색 및 획득은 물론 표절 행위까지도 모두가 너무나도 쉽고 간편해졌다. 그뿐이라.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돈 한 톨 내지 않고도 저작물을 팔아 이득을 얻고, 저작물을 사서 감상할 수 있게 된 세상이다. 영화도 사진도 글도 음악도 모두 디지털화되면서 복제는 더욱 간편해졌고, 원본과 복제본 사이의 품질 차이는 0에 수렴해 간다.

그 외에도 ICT 발전과 더불어 고심해야 할 윤리적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 해결은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회적 합의와 그 상징인 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먼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하고,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그런 것에 신경써서 뭐 하느냐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기도 하다. 그러나 ICT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은 도구일 뿐, 결코 그 도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지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야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인 법을 만들고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ICT 자체에 윤리 코드를 통합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 ICT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로, 점차 인공지능과의 통합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재판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ICT에서의 윤리 문제는 인간 판사가 해석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빠르게 벌어지므로, 윤리 코드를 가진 인공지능에 그 해석과 판단을 내려보는 것도 나름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각 개인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면, 이제는 ICT에 대해 가졌던 환상과 기대를 어느 정도 거두고, 네트워크에 대해 냉정한 시선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 보급 초창기에 사람들은 인터넷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개인들의 포럼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상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이다. 그리고 인간 합리성의 정수를 모아 만들었다는 사이버 공간은 역설적으로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말았다. 두뇌를 거치지 않고 손가락 끝에서 바로 나온 수많은 메시지가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